

이스탄불, 지중해 문명과 아시아를 잇다



강사: **이은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터키 국립 앙카라 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오스만제국의 황실하렘 여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스만제국과 유럽의 중층적인 관계 및 오스만 여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슬람 페미니즘’과 중동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의 퇴행에 주목하며 이슬람 여권 문제를 공부 중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에서 이슬람 문명사 및 동서교류의 역사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공저서로는 <서양 여성들, 근대를 달리다>, <지도자들>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아랍:오스만제국에서 아랍혁명까지>, <오스만제국은 왜 몰락했는가>, <읽어버린 계몽의 시대> 등이 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도시가 형성된 고대 그리스 시대(BC 660년)에는 ‘비잔티온’으로 불렸고,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곳을 로마제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장장 1123년 동안 지중해 및 유럽 문명의 본거지로 군림했던 이 도시는 1453년 오스만제국의 정복과 함께 이슬람 세계의 수도로 거듭났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이스탄불은 지중해 문명의 정치, 문화, 학문, 종교의 거점으로서, 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각지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교역 도시로서 번영을 누렸다. 그 결과 이스탄불은 히타이트나 아시리아 같은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부터 그리스-로마, 중세 기독교 유럽,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목문화와 이슬람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룩한 오천 년의 역사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인류 문명의 살아 있는 거대한 옥외 박물관”(토인비)이 되었다.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수많은 종교와 사상, 신화가 이스탄불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관용과 화해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스탄불이라는 역사 도시로 떠나는 과거 여행은 서로 다른 이념과 종교적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만연한 오늘날의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미래와 전망을 보여줄 것인가? 부푼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린다.